

2019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최 결과와 시사점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차 례

1. 브릭스 개관
2. 브릭스 경제 현황
3. 2019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 결과
4.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브릭스(BRICS)는 2006년에 러시아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되는 신흥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임.
 - 브릭스는 △경제·금융 △보건 △과학기술 혁신 △안보 △비즈니스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분야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세부 실무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 브릭스는 인구, 경제규모, 무역, 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거대한 경제블록 중 하나이며, 2018년을 기준으로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GDP 성장의 43%를 이끌고 있음.
 - 2018년 기준 브릭스의 인구는 약 31억 6,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41.6%를 차지하며, GDP 규모도 약 20조 달러로 세계 GDP의 32.6%를 차지함.
 - 브릭스 국가의 수출, 수입 규모는 세계에서 각각 16.3%(4조 1,000억 달러), 15.8%(3조 9,000억 달러)를 차지하며, FDI(순유입)는 28.9%(3,482억 달러)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브릭스 국가들은 철광석, 보옥사이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 브릭스 국가들은 2009년부터 중점 협력분야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기간 동안 다양한 협력 성과를 도출하였음.
 - 2019 브릭스 정상회의는 11월 13~14일 이틀간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서 '브릭스: 혁신적 미래를 위한 경제 성장(BRICS: Economic Growth for an Innovative Future)'을 주제로 개최됨.
 - 브릭스 정상들은 2019 브라질리아 선언을 통해 다자주의적인 국제 거버넌스를 촉구하고, WTO 체제에 반하는 일방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신개발은행의 회원국을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음.
 - 브릭스 국가들은 역내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혁명 관련 협력이 특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 지난 11년간 브릭스는 단순한 '대화 포럼(Dialogue Forum)'에서 전면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협력 분야 및 파트너 국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세계경제에서 브릭스의 비중이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으로 브릭스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브릭스 개관

■ 브릭스(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되는 신흥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임.

- 2001년 골드만삭스가 당시 빠르게 성장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경제를 가리켜 브릭스(BRICs)라는 용어를 만들었으며, 이들 4개국이 2020년에는 세계경제의 1/3을 차지하고, 2050년에는 G7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¹⁾
- 러시아의 적극적인 주도로 2006년부터 브릭스(BRICS) 차원의 고위급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함.²⁾
 - 2006년 9월 푸틴의 제안으로 UN 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첫 번째 브릭스 장관급회의가 열렸으며, 이후 2008년 5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브릭스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음.
 - 2008년 7월 G8 정상회의가 개최된 일본 토야코에서 당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브라질, 중국, 인도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2009년 6월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첫 번째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음.
-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공식 합류함으로써 현재의 5개국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가 되었음.

그림 1. 지도상 브릭스 국가들의 위치



자료: "The Data Behind Emerging Economies," Califjordia.

■ 브릭스는 △경제·금융 △보건 △과학기술 혁신 △안보 △비즈니스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분야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세부 실무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표 1 참고).

- 특히 경제·금융 분야 협력을 위해 설립된 신개발은행과 위기대응기금은 서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1) Center for WTO Studies(2013), "BRICS Trade Policies, Institutions and Areas of Deepening Cooperation," p. 4; G7 국제 정 부간 경제기구로 회원국은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 세계에서 가장 큰 7개 경제국들로 구성됨.

2) BRICS Information Portal, "History of BRICS."

IMF, WB 등의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국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³⁾

- 브릭스 회원국의 IMF 투표권(지분)은 14.18%로 미국이 가진 16.52%에 미치지 못하며,⁴⁾ WB의 투표권 역시 13.39%로 미국의 15.49%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⁵⁾
- 신개발은행은 출자자본금 500억 달러에 납입자본금 100억 달러규모이며, 브릭스 5개국이 각각 20%씩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⁶⁾

표 1. 브릭스 중점 협력분야와 관련 조직

협력 분야	관련 조직
경제·금융	• 2015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설립 • 2015 위기대응기금(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설립
보건	• 2017 결핵연구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혁신	• 2013 브릭스 싱크탱크 이사회(BRICS Think Thanks Council) 설립 • 2015 STI 조종위원회(STI Steering Committee) 설립 • 9개 주제별 실무그룹 운영(재료공학, 에너지, 지리공간기술, 천문학, 극지 및 해양, ICT와 고성능 컴퓨팅, 바이오 제약, 자연재해, 광학)
안보	• 2009 국가안보자문단(National Security Advisors) 회의 시작 • 안보 실무그룹 운영
비즈니스	• 2013 비즈니스 이사회(Business Council) 설립 • 9개 분야 실무그룹 운영(인프라, 제조, 에너지, 농업, 금융서비스, 지역항공, 디지털 경제, 규제완화, 역량 조화 및 개발) • 2010 비즈니스 포럼 설립

자료: BRICS Brasil 2019, BRICS Business Council, BRICS TB Research Network(검색일: 2019. 11. 18) 등 브릭스 관련 조직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브릭스의 경제 현황

■ 브릭스는 인구, 경제규모, 무역, 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거대한 경제블록 중 하나임.

- 2018년 기준 브릭스의 인구는 약 31억 6,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41.6%를 차지하며, GDP 규모도 약 20조 달러로 세계 GDP의 23.6%를 차지함.
- 상기한 바와 같이 브릭스 회원국 중에서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각각 13억 9,000만 명, 13억 5,000만 명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세계 인구의 26%, 브릭스 인구의 87%).
- GDP의 경우에도 중국이 13조 6,000억 달러로 브릭스 GDP의 6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도는 2조 7,000억 달러, 13.5%, 러시아는 1조 7,000억 달러, 8.2%로 그 뒤를 잇고 있음.

3) "Russia to throw weight behind China's concept of BRICS+"(2019. 11. 12), *Global Times*.

4) IMF, www.imf.org(검색일: 2019. 11. 20).

5) WB Group Finances, finances.worldbank.org/(검색일: 2019. 11. 20).

6) 다른 국제개발은행에 비해서 자본금이 크지는 않으나, 2019년 말까지 승인된 사업규모가 140억~150억 달러(AIIB의 두 배)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음. "BRICS nations to study adding countries to development bank"(2019. 11. 12), *Reuters*.

- 브릭스 국가들의 수출, 수입 규모는 세계에서 각각 16.3%(4조 1,000억 달러), 15.8%(3조 9,000억 달러)를 차지하며, FDI(순유입)는 28.9%(3,482억 달러)로 큰 비중을 차지했음.
- 수출, 수입, FDI(순유입)에서도 브릭스 국가 중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큰데, 브릭스 수출에서 중국이 2조 7,000억 달러, 64.9%, 인도가 5,370억 달러, 13.1%, 러시아가 5,100억 달러, 12.5%를 차지했음.
- 브릭스 수입에서는 중국이 2조 5,000억 달러, 65.2%, 인도가 6,380억 달러, 16.3%, 러시아가 3,443억 달러, 8.8%를 차지했음.
- 브릭스 FDI(순유입)에서는 중국이 2,035억 달러, 58.4%, 브라질이 883억 달러, 25.4%, 인도가 421억 달러, 12.1%를 차지했음.

표 2. 브릭스의 경제규모

(단위: %)

경제권	영토	인구	GDP	수출	수입	FDI(순유입)
BRICS	30.1	41.6	23.6	16.3	15.8	28.9
ASEAN	3.4	8.6	3.5	7.3	6.9	12.9
RCEP	19.7	47.5	32.1	27.1	26.8	41.8
NAFTA	15.9	6.5	27.3	10.7	4.6	28.3
EU	3.3	6.8	21.9	34.6	32.7	4.2

주: 2018년 기준, 일본, 미얀마, 라오스, 뉴질랜드, 미국 등의 경우 수출, 수입에 관한 WDI가 부재함. 따라서 수출, 수입 항목의 일부는 오수현, 한형민, 연원호, 이보람, 김지현(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4, p. 6 참고.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9. 11. 19).

■ 브릭스는 세계 영토의 30.1%를 차지하며, 이 광활한 영토 내에 철광석, 보오크사이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표 3 참고).

- 브릭스 국가 중 러시아와 중국이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있으며, 러시아와 브라질은 대표적인 자원수출국으로 자리하고 있음.⁷⁾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금, 플래티늄 등의 광물수출국임.⁸⁾

표 3. 브릭스 보유자원

(단위: 세계 비중, %)

구분	철광석		보오크사이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생산	매장량	생산	매장량	생산	매장량	생산	매장량	생산	매장량
브라질	13.6	18.2	13.2	9.3	-	1.0	2.6	1.2	0.6	0.2
중국	44.7	13.5	18.2	3.0	53.0	13.8	5.0	1.4	3.0	1.7
인도	4.9	4.8	7.4	1.9	8.7	7.5	1.0	0.4	1.2	0.8
러시아	3.6	14.7	2.2	7.1	4.1	21.1	12.4	6.8	19.1	24.7
남아프리카공화국	2.2	0.6	-	-	-	-	-	-	-	-
합계	69.0	51.8	41.0	21.3	69.7	50.3	21.0	9.8	23.9	27.4

주: 2012년 기준.

자료: Wilson, Jeffrey D.(2015), "Resource powers? Minerals, energy and the rise of the BRICS," *Third World Quarterly*, Vol. 35, Issue 2, p. 225, Table 1 재인용.

7) 안성배 외(2019), 「2020년 세계경제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3, pp. 77~82, pp. 89~93.

8) Heritage.org, South Africa(검색일: 2019. 11. 19).

■ 브릭스 회원국의 주요 상품 수출분야는 [표 4]와 같음.

- 중국 수출에서 기계·기기가 43.3%, 섬유·의류가 11.4%를 차지함으로써, 제조업 강국의 면모가 뚜렷이 나타남.
- 인도는 원석·유리, 섬유·의류, 화학, 연료, 금속 등을 주로 수출함.
-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원자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짐.
 - 브라질은 채소, 식료품, 광물, 연료 등 주로 농산물 또는 천연자원을 수출함.
 - 러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연료의 비중은 59.0%로,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특징을 확연하게 보임.
 -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원석·유리, 광물, 연료, 금속 등 주로 천연자원을 수출함.

표 4. 브릭스의 수출구조

(단위: %)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1	채소	17.8	기계·기기	43.3	원석·유리	15.1	연료	59.0	원석·유리	16.5
2	식료품	11.6	섬유·의류	11.4	섬유·의류	12.6	금속	10.4	광물	13.3
3	광물	10.6	금속	7.3	화학	12.6	화학	4.6	교통	12.0
4	연료	9.8	화학	5.1	연료	12.2	기계·기기	3.6	연료	12.0
5	교통	9.1	교통	4.6	금속	9.6	원석·유리	3.5	금속	12.0

주: 2017년 기준. 기타 항목(Miscellaneous)은 목록에서 제외함.

자료: WITS, Brazil, China, India, Russia, South Africa(검색일: 2019. 11. 19).

■ 2018년을 기준으로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GDP 성장의 43%를 이끌고 있음.⁹⁾

- 신흥경제로 구성되는 브릭스는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표 5 참고).
- 2018년 중국과 인도는 각각 6.6%,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 2014년 이래로 국제자원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자원수출국인 러시아와 브라질은 비교적 완만한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5.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2010~18)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브라질	7.5	4.0	1.9	3.0	0.5	-3.6	-3.3	1.1	1.1
중국	10.6	9.5	7.9	7.8	7.3	6.9	6.7	6.8	6.6
인도	10.3	6.6	5.5	6.4	7.4	8.0	8.2	7.2	6.8
러시아	4.5	5.1	3.7	1.8	0.7	-2.3	0.3	1.6	2.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3	2.2	2.5	1.8	1.2	0.4	1.4	0.8
세계 평균	5.4	4.3	3.5	3.5	3.6	3.5	3.4	3.8	3.6

자료: IMF, WEO database(검색일: 2019. 11. 19).

9) New Development Bank(2019), "Investor Presentation," p. 6.

3. 2019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 결과

■ 브릭스 국가들은 2009년부터 중점 협력분야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기간 동안 다양한 협력 성과를 도출하였음.

- 브릭스 의장국은 매년 바뀌며, 의장국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음.
- 2020년에는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될 예정임.¹⁰⁾
- 과거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성과는 [표 6]과 같음.

표 6. 과거 브릭스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성과

정상회의명			주요 논의 내용 및 성과
1차	러시아	2009 예카테린부르크 정상회의	• G20, IMF, WB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협력 강화 논의 • 국제경제제도 내 신흥국의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글로벌 식량 안보 공동 성명서 채택
2차	브라질	2010 브라질리아 정상회의	• 글로벌 금융위기, IMF 및 WB 경영진 선정 메커니즘, 기후변화, UN 개혁, 국제 및 지역 이슈, 브릭스 협력 논의 • 남아프리카공화국 합류 결정
3차	중국	2011 산야 정상회의	•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 재강조, 경제·금융, 테러, 신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핵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 새천년개발목표(MDGs) 약속과 기아 및 빈곤 퇴치 등에 대해 논의 • 브릭스 정식 명칭 BRICs에서 BRICS로 변경
4차	인도	2012 뉴델리 정상회의	• ‘글로벌 안정성, 안보, 번영을 위한 브릭스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신흥국의 IMF, WB에서의 역할 확대, 신개발은행 설립 문제 논의
5차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3 더반 정상회의	• ‘브릭스와 아프리카: 개발, 통합, 산업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포용적 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논의 • 브릭스 싱크탱크 이사회 설립, 신개발은행 규모, 설립 목적 등에 대해 협의
6차	브라질	2014 포르탈레자 정상회의	•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주제로 논의 •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신개발은행과 국제수지 위기 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기금 설립 확정
7차	러시아	2015 우파 정상회의	• ‘브릭스 파트너십-글로벌 개발을 위한 동력’을 주제로 논의 • 브릭스 경제 파트너십 전략문 채택, 문화 협력 협정문 체결, 신개발은행 협정문 체결
8차	인도	2016 고아 정상회의	• ‘포용적 집단적 해결책 모색’을 주제로 국제 정치·경제 상황, 글로벌 거버넌스, 반테러 활동,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BRICS 협력, 인적 및 문화적 교류 등에 대해서 논의
9차	중국	2017 샤먼 정상회의	• ‘브릭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더 강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논의 • 혁신협력 액션플랜 채택, 브릭스 결핵 연구 네트워크 형성, 경제 및 상업 협력 액션플랜 채택, 브릭스 관세협력 전략 채택, 신개발은행과 브릭스 비즈니스 이사회 간 MOU 체결
10차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8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 ‘브릭스: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을 주제로 논의 • 신개발은행 미주지역 사무실 개설 협정 체결, 지역항공 파트너십 체결, 브릭스 혁신 네트워크 승인
11차	브라질	2019 브라질리아 정상회의	• ‘브릭스: 혁신적 미래를 위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논의 • 브릭스 혁신 네트워크 설립, 브릭스 무역투자진흥원들간 MOU 체결, 브릭스 여성사업가연합 설립, 디지털 브릭스 태스크포스 설치

자료: BRICS Brasil 2019; BRICS Summit 2016; “Themes and results of BRICS summits over the decade”(2017. 9. 10), *Chinadaily*;

10) 동시에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 의장국도 맡게 되어 2020년 두 기구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기대되는 바임.

■ 2019 브릭스 정상회의는 11월 13~14일 이틀간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서 ‘브릭스: 혁신적 미래를 위한 경제성장(BRICS: Economic Growth for an Innovative Future)’을 주제로 개최되었음.¹¹⁾

- 2019 브라질리아 선언의 주요 내용은 [표 7]과 같음.
 - 브릭스 정상들은 2019 브라질리아 선언을 통해 다자주의적인 국제거버넌스를 촉구했음.¹²⁾
- 경제 및 금융 협력 논의를 통해 현존하는 국제경제체제 개혁을 요구하며, 협력 범위와 파트너 확대 의향을 내비쳤음.
 - WTO 체제에 반하는 일방적·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개도국 또는 저개발국의 입장을 고려한 WTO 개혁을 주장함.¹³⁾
 - 무역·경제 분야에서의 다자주의 추구의 일환으로 브릭스 국가들은 브릭스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액션어젠다를 실행하고 브릭스 공동무역연구 검토를 완료하는 등 역내 무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신개발은행의 회원국 확대 가능성을 제기함.¹⁴⁾
 - 브릭스 국가들은 역내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과 신산업혁명 관련 협력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음.
-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한다고 표명함.

표 7. 2019 브라질리아 선언의 주요 내용

구분(조항)	주요 내용
전문(1~4)	• [주제] 브릭스-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경제성장 • 2019년 금융, 무역, 외교, 안보, 통신, 환경, 노동 및 고용, 과학, 기술 및 혁신, 에너지, 농업, 보건, 문화 등의 분야에서 장관급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신개발은행의 이사회 회의도 개최 • 브릭스 혁신 네트워크 설립,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구도 도입, 브릭스 무역투자진흥원들간 MOU 체결, 브릭스 여성사업가연합 설립, 반테러, 자산, 모유은행 등에 관한 행사 개최 등의 성과를 공유
다자주의 시스템 강화 및 개혁(5~22)	• 신흥국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UN, WTO, IMF 등 국제기구의 다자 시스템 개혁 촉구 •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실행의 중요성 강조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정 이행 약속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기본협정 지지 △화학무기 및 독성무기 금지 관련 협약의 중요성 재강조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ICT 기술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되, 범죄나 테러 등에 오용 방지 △불법적 금융자금 흐름 퇴치 등에 대한 표명

11) BRICS-Brazil(2019), "Theme and priorities," <http://brics2019.itamaraty.gov.br/en/2019-brazilian-presidency/theme-and-priorities> (검색일: 2019. 11. 15).

12)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다극적인 글로벌 시스템 형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Russia to throw weight behind China's concept of BRICS+" (2019. 11. 12), *Global Times*.

13)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는 WTO에서 개도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2020년 6월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추진하기로 함. 「브릭스 통상장관 회담 '보호주의의 배격.. WTO 다자주의 존중해야」 (2019. 11. 13), 『연합뉴스』.

14) 신개발은행 회원국은 브릭스 5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며, 현재는 칠레, 콜롬비아가 유력한 후보국인 것으로 알려짐. 브릭스 회원국에 속한 각 대륙별로 3개국씩 새로운 회원국을 영입하고자 하며, 칠레와 콜롬비아는 브라질의 쿼터로 가입할 것으로 보임. "Лидеры БРИКС говорят о многополярности" (2019. 11. 13),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구분(조항)	주요 내용
경제 및 금융 협력(23~40)	△G20 차원, 브릭스 차원에서 협력하고 △16차 쿼터 일반검토하에 IMF 거버넌스 개혁 촉구 △WTO 체제에 반하는 일방주의, 보호주의적인 태도 회피와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WTO 개혁 요구 △생산, 전자상거래, SME, 인프라 등 부문에 대한 투자 장려 △신개발은행 회원국 확대를 통한 열할 및 활동 범위 확대 기대 △위기대응기금 시범 운영 확인 △브릭스 지역화폐채권펀드 설립 논의 진전 확인 △브릭스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액션어젠다 실행, 브릭스 공동무역연구 검토 완료 △여성 사업가연합 설립 등에 대해서 언급
지역 상황(41~49)	-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로운 분쟁해결 노력을 약속하고, UN 안보이사회의 역할을 확인 △시리아, 예멘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고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조속한 해결 △아프가니스탄 지원 지속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 △리비아에 대한 무력 행사 중단 △수단의 정치적 협약 및 헌법 선언 축하 등을 언급
브릭스 역내 협력(50~73)	2019. 7. 리오테자네로 외교부 장관회담에서 국제정치, 안보, 경제, 금융 문제에 대한 브릭스 협력 강화 논의 2019. 10. 브릭스 안보 고위대표회의에서 반테러, ICT 사용에서의 보안, 주요 국제 및 지역 분쟁지역, 평화유지, 초국경 범죄 등에 대해서 논의 - 이 외에 과학기술 혁신과 신산업혁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브릭스 혁신네트워크 설립, 디지털 브릭스 태스크포스 설치, 원격 위성인식 협력에 대한 협정문 체결 등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에너지, 보건, 관세, 세금, 투자 및 무역, 부패, 환경, 농업, 노동 및 고용, 문화, 인적교류, 국회 협력, 법률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

자료: "Declaration of the 11th BRICS Summit"(2019. 11. 14), President of Russia.

4. 전망과 시사점

■ 지난 11년간 브릭스는 단순한 '대화 포럼(Dialogue Forum)'에서 전면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협력 분야 및 파트너 국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회원국들은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특히 금융 및 디지털 기술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례로 암호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한 공동결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임.¹⁵⁾
- 중장기적으로 브릭스 회원국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회원가입을 희망하고 있음.¹⁶⁾
- 브릭스 회원국들은 상하이협력기구(러시아,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메르코수르(브라질)의

15) "BRICS Countries will soon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global economy"(2019. 11. 11), *Inforbrics*: "Страны БРИКС могут ввести криптовалюту"(2019. 11. 14), Газета.Ру.

16) "Russia to throw weight behind China's concept of BRICS+"(2019. 11. 12), *Global Times*; 회원국 확대 시 아르헨티나가 가장 유력한 신규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Лидеры БРИКС говорят о многополярности"(2019. 11. 13),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회원국이며,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인도) 등의 지역협력체들과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임.¹⁷⁾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브릭스의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라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으로 브릭스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재무부는 2030년 브릭스 경제가 세계경제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음.¹⁸⁾
- 브릭스 국가들은 각종 국제회의와 브릭스 정상회의를 통해 선진국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경제거버넌스를 현실에 맞게 개혁할 것을 꾸준히 주장하는 등 신흥국의 입장 대변을 자처하고 있음.
- 한국의 무역구조를 다각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브릭스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함.
 - 미국, 중국, 일본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무역구조를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자원수출국인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측간 무역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추진, 신개발은행 회원 가입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브릭스와의 협력이 도움 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한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원칙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브릭스와 입장을 같이 하므로 이 부분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미국, 일본의 일방주의가 WTO 다자무역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⁹⁾
-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회원국들이 미국 일방주의를 우려하고, 다자주의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브릭스와 공동의 목소리를 내거나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신북방경제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2020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KIEP

17) "Russia to throw weight behind China's concept of BRICS+"(2019. 11. 12), *Global Times*.

18) "BRICS Countries will soon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global economy"(2019. 11. 11), *Inforbrics*.

19) 이창수(2018), 「미-중 통상분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학회, pp. 56~61.